

# 海印寺 法寶殿 및 大寂光殿 木造毘盧遮那佛像의 研究

## 손영문\*

- I. 머리말
- II. 해인사 비로자나불상의 조성배경
- III. 복장유물을 통해본 해인사 비로자나불상의 중수
- IV. 비로자나불상의 형식 및 양식적 특징
- V. 맺음말

## I. 머리말

해인사에는 한국조각사에 있어서 가장 주목해야 할 2구의 목조비로자나불이 전해오고 있다. 그 동안 이 2구의 불상의 조성시기에 대해 해인사가 조선 왕실의 지원을 받아 대대적으로 중창되던 시기(1488-1490)에 만들어졌거나 중수된 불상 정도로 여겨왔다. 그런데 2005년 불상을 개금하던 중 법보전 비로자나불상에서 다량의 복장유물과 함께 내부 등 쪽에서 “대각간 부부가 서원하여 883년 여름에 금칠하여 완성하였다”라는 기록이 발견되어 일약 국내 최고의 목조 불상으로 주목을 받았다. 이후 이들 불상에 대한 미술사적 연구, 과학적 조사, 목서명에 대한 분석 등

---

\* 문화재청 문화재전문위원



도 1 해인사 대비로전



도 1-1 해인사 목조비로자나불상 전경

이 이루어졌고 이는 같은 해 12월 10일 “해인사 비로자나불 학술강연회”에서 발표되었고,<sup>1</sup> 2007년 11월 24일 대적광전 우측 편에 정면3칸, 측면 3칸의 대비로전 (도 1)을 새롭게 낙성하고 법보전과 대적광전에 모셔져 있던 두 비로자나불상(도 1-1)을 나란히 안치해 두고 있다.

이와 같은 다각적인 분석 결과가 발표되었지만, 아직까지 법보전 비로자나불상의 조성시기와 조성주체에 대한 논란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우선 墨書가 천백 여년 전에 적은 것 치고는 너무 선명하다는 것이고, 그 다음이 목서를 적은 나무판이나 무릎판재의 자귀자국도 시각적으로 너무 생생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란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본다.

본 글에서는 위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주안점을 두기 보다는 기존의 연구 성과를 토대로 하여 지금까지 한번도 제대로 다루지 않은 2구의 비로자나불상에서 발견된 다량의 복장유물 중 불상의 중수와 관련된 것들을 중심으로 입체적이고 종합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비로자나불상의 조성연대, 중수연대, 그리고 조성 및 중수주체 등에 대해 한층 보강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물론 미술사에서 중요한 불상의 형식 및 양식적 특징을 파악하고 이 두 구의 불상이 한국미술사 나아가 한국조각사에서 차지하는 위치 및 의의, 그리고 향후 과제 등에 대해서도 살펴 보겠다.

<sup>1</sup> 이 날 발표에서는 미술사적으로 분석한 강우방 교수의 「海印寺 木造 毘盧遮那佛像考」, 불교사적으로 고찰한 김상현 교수의 「9세기 후반의 해인사와 신라왕실의 후원」, 비로자나불상에서 채취한 목재에 대한 과학적 분석을 시도한 박상진 교수의 「해인사 목조 비로자나불의 재질과 제작연대 분석」, 그리고 목서명에 대한 분석을 시도한 남풍현 선생의 「중화삼년에 조성한 해인사 불상의 내면 목서 해독」등이 발표되었다. 이 논문들은 「9세기 해인사 비로자나불의 역사성과 예술성」(법보종찰 해인사, 2010. 12)에 수록되어 있다.

## II. 해인사 비로자나불상의 조성배경

해인사에 있는 2구의 비로자나불상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해인사의 창건배경과 사상적 배경, 그리고 복장에서 발견된 복장유물들을 종합적으로 파악해야 할 것이다.

해인사의 창건에 대하여, 『三國史記』와 신라말 대문장가인 崔致遠(857-?)이 900년에 찬한 『新羅迦耶山海印寺善安住院壁記』에는 哀莊王 3년 즉 802년에 창건되었다고 하며,<sup>2</sup> 고려 초 943년 이후에 쓰여진 것으로 추정되는 찬자미상의 『伽倻山海印寺古籍』에서도 애장왕 3년에 창건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sup>3</sup>

이 가운데 해인사 창건배경과 창건주를 구체적으로 기술한 것은 최치원의 「신라가야산해인사선안주원벽기」와 「해인사고적」 등으로, 두 기록 모두 順應과 그의 제자 利貞을 창건주로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창건 배경에 대해서는 다소간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데, 前者의 경우 애장왕의 祖母인 聖穆王太后的 귀의와 도움으로 창건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sup>4</sup> 後者의 경우 순응과 이정이 애장왕후의 등창을 고쳐준 것을 계기로 애장왕이 해인사를 창건케 하고 친히 納田慶讚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sup>5</sup> 이렇게 후원주체가 서로 다르게 기록되어 있지만, 순응과 이정이라는 두 인물에 의해 창건되었으며 후원 배경도 넓은 의미에서 애장왕대의 왕실이었다는 사실은 공통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해인사가 창건되었을 때의 주불전과 그 안에 봉안되었을 불상에 대한 기록은 없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창건주 순응의 사상적 경향을 통해 창건 당시 주불전과 주불에 대해서 추측할 수밖에 없다.

우선 創建主 순응은 入唐前 의상의 법통을 계승한 浮石嫡孫 神琳에게서 배운 바 있기 때문에 해인사 역시 의상계 화엄사찰로 분류된다.<sup>6</sup> 그런데 순응이 활동하던 시기인 8세기 후반의 신라화엄학계에는 변화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즉 통일신라 하대 초인 799년에 梵修가 전해온 淸涼

2 『三國史記』卷10 哀莊王 3年條, “……八月 創加耶山海印寺.”; 崔致遠 撰, 『新羅迦耶山海印寺善安住院壁記』, 『東文選』卷64 記 참조.

3 撰者未詳, 『伽倻山海印寺古籍』(943년경)

4 “……越貞元十八年良月既望, 牽率同志, 卜築於斯, 山靈鈞妙德之名, 地體印淸涼之勢, 分裝五髻, 競拔一毛, 于時聖穆王太后, 母儀四夷, 子六三學, 聞風敬悅, 誓日歸依, 捨以嘉蔬, 副之束帛……”, 崔致遠 撰, 앞의 글, 『東文選』卷 64 記.

5 撰者未詳, 『伽倻山海印寺古籍』, “…王后發背之患告之師受以五色線曰宮前有何物荅曰有梨樹師曰持此線一頭繫於梨樹一頭接於瘡口即無患其使還報於王王依言試之梨枯患差王感之敬之使國人勸立茲寺焉時哀莊三年壬午即唐貞元十八年也大王親幸於茲寺納田二千五百結慶讚…….”

6 李智冠 編著, 『伽倻山海印寺誌』(伽山文庫, 1992), p. 69; 정병삼, 「華嚴十刹의 형성과 海印寺」, 『한국불교에 미친 해인사의 역할과 나아갈 방향』(법보종찰 해인사, 2002), pp. 35-38.



도 2 석남암수 석조비로자나불좌상,  
766년경, 산청내원사,  
보물 제1021호



도 2-1 영태2년명 납석제호, 766년,  
부산시립박물관, 국보 제233호

澄觀(738-839)의 80화엄경의 주석서인 화엄경소가 신라 화엄사상 전개에 새로운 계기가 되었다. 순응 역시 이러한 시대적 분위기에 흠뻑 젖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그에 대해 「해인사선안주원벽기」에 “교리를 철저히 연구하고 선의 세계에 깊이 들어갔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서 알 수 있듯이, 그는 당에 유학하여 당시 유행하던 징관의 禪教一致的 경향의 새로운 화엄사상을 접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였던 것이다.<sup>8</sup> 당시 징관은 선종과 밀교를 두루 섭렵한 화엄의 조사로 그에 의해 밀교의 지권인 비로자나불상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sup>9</sup> 징관의 화엄사상의 영향을 받아 창건된 해인사도 이러한 지권인 비로자나불상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그것은 해인사 창건 이전, 이미 해인사와 가까운 곳인 산청 석남암수(766년)에서 새로운 형식의 지권인 비로자나불상(도 2, 2-1)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보다 늦은 9세기 이후에 창건된 화엄종 사찰에서는 이러한 지권인 비로자나불상을 종파의 본존불로 적극 수용할 시대적 분위기는 충분하였고, 당시에 조성되었을 비로자나불상도 현존하는 것과 다름없었을 것이다.

이후 眞聖女王에 이르기까지 약 1세기 동안은 사료의 부족으로 해인사의 변화과정은 살필 수 없다. 그러나 闍崛山派 梵日的 제자인 朗空大師 行寂(832-916)<sup>10</sup>이나

7 “……有若祖師順應大德，效成觀於神林碩德，問老聃於大曆初年，託窾木以忘軀，尋住山而得髓，窮探教海，俊達禪河，泊遂言歸，光膺妙選……”，崔致遠撰，위의 글，『東文選』卷64記.

8 신라시대 초인 소성왕 원년(799) 梵修에 의하여 중국 화엄종의 제4조 징관(738-839)의 화엄경소가 신라에 전래 소개되었다. 『三國遺事』卷4 義解 勝詮觸髓 條 참조；崔源植，『新羅 下代の海印寺와 華嚴宗』，『韓國史研究』49(韓國史硏究會，1985.6)，pp. 3-9.

9 文明大，『智拳印 毘盧遮那佛像의 成立問題와 石南巖寺 毘盧遮那佛像의 研究』，『佛教美術』11(동국대학교박물관，1992.)，p. 68；同著，『원음과 고전미』(예경，2003)，p. 197 재수록.

10 『奉化太子寺朗空大師白月栖雲塔碑』，『朝鮮金石總覽』上(朝鮮總督，1919，아세아문화사，1976)，p. 182.

弘覺禪師 利觀(?-880) 등이 일찍이 해인사에서 화엄학을 배웠던 만큼, 화엄종과 내에서의 해인사의 위상은 높았다고 추정된다.<sup>11</sup>

해인사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적은 9세기말부터 살펴 볼 수 있다. 당시 해인사는 신라왕실의 막대한 지원을 통해 엄청난 경제력과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한 화엄종의 중심사찰이었다. 이 당시 해인사의 사세는 조선 성종 21년(경술년 1490) 봄 비로전을 증창할 때 발견된 신라시대 買田庄券과 해인사 吉祥塔에서 발견된 4매의 탐지이다. 이 매전장권은 현존하지는 않지만, 이것을 보고 조선시대 유학자 曹偉가 쓴 「書海印寺田券後」라는 글이 『梅溪集』에 전한다.<sup>12</sup> 우선 조위의 「서해인사전권후」에 의하면, 憲康王 4년(878)부터 진성여왕 8년(895)에 이르는 기간 동안 해인사가 대대적으로 토지를 매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창건 당시부터 해인사와 신라왕실의 관계를 고려하면, 이 당시 거행된 토지매입은 자체적인 매입이라기 보다 아마도 매대형식을 빈 사실상 왕실의 기진,<sup>13</sup> 또는 그 지역의 토지를 매입하거나 매입할 수 있는 재화나 화폐를 해인사에 희사한 것으로 보인다.<sup>14</sup>

이와 함께 주목되는 것은 당시 대표적인 화엄승인 賢俊과 泐言이 해인사에 주석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결언은 元聖王을 추복하기 위한 대승복사의 법회에서 교지를 받들어 5일 동안 강경하였으며,<sup>15</sup> 현준은 신라말 대문장가 최치원의 친형으로 定康王代에 선왕인 헌강대왕을 추복하기 위한 華嚴經社會를 주도하고 이곳에서 화엄경을 강설한 강주였다. 특히 화엄경 사경에는 후일 진성여왕이 되는 北宮長公主가 후원자로 등장하고 있다.<sup>16</sup> 헌강·정강왕 나아가 북궁장공주가

11 「襄陽沙林寺弘覺禪師碑」, 『朝鮮金石總覽』上(朝鮮總督, 1919, 아세아문화사, 1976), p. 65, 선종 사찰에서의 비로자나불상의 조성이 선사들의 출가 초기에 화엄을 배운 것과 무관치 않기 때문에, 어쩌면 해인사에 조성된 새로운 형식의 지권인 비로자나불상이 선종 사찰의 비로자나불 조성에도 크게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12 해인사 매전장권은 15세기 말에 함양군수 조위에 의해 목격되었다. 조위는 자신의 문집 『매계집』에 '이 절에서 전장을 사들인 문권이다'라고 썼다. 그는 「해인사전권」을 토지매입 문건으로 판단했다. 43권의 전권중 연도가 분명하거나 확인되는 것은 헌강왕 4년(878), 헌강왕 6년(880), 헌강왕 11년(885), 진성여왕 4년(890), 진성왕 5년(891), 진성여왕 8년(894) 등 모두 7권이다. 하일식, 「해인사전권과 묘길상탑기」, 『역사와현실』24(한국역사연구회, 1997), pp. 17-18.

13 하일식, 위의 논문, pp. 17-18.

14 金鎮國, 「新羅下代 海印寺와 王室」(東國大學校大學院 史學科 碩士學位論文, 2004), p. 15.

15 「慶州崇福寺碑」, 『朝鮮金石總覽』上(1919, 아세아문화사, 1976), p. 120 ; 張日圭, 「승복사비명과 경문왕계 왕실」, 『歷史學報』192(歷史學會, 2006.12), pp. 35-65 참조.

16 崔致遠 撰, 「華嚴經社會願文」, 崔英成 譯註 『崔致遠全集』2 (亞細亞文化社, 1999), p. 233 ; 崔源植, 「新羅下代の 海印寺와 華嚴宗」, 『韓國史研究』49(한국사연구회, 1985), pp. 18-19. 北宮長公主라는 칭호는 진성여왕이 왕위 등극 이전부터 북궁에 거처하면서 얻은 칭호로 생각되며, 또한 北宮에서 죽음을 맞이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三國史記』卷 11 眞聖王 11年條, “冬十二月乙巳 王薨於北宮 諡曰眞聖.”



도 3 법보전 목조비로자나불좌상, 883년경(?), 개금전



도 3-1 법보전 목조비로자나불좌상 내 부목서

지 두터운 친분 관계를 유지했던 현준이 해인사에 주석하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해인사 불사에 중요한 역할이 기대되는 상황이다.

현강왕대부터 진성여왕대에 이르는 왕실의 대대적인 후원은 당연히 사찰의 중수, 원당의 건립 및 수보, 원불의 조성 및 수보 등으로 이어졌을 것이며, 이 과정에서 법보·대적광전 비로자나불상의 조성 내지 金漆補修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에 묵서명도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이해될 수도 있다.

2005년에 발견된 법보전 비로자나불상의 묵서명(도 3, 3-1)은 오른쪽 줄 17자, 왼쪽 줄 14자로 글자 수에는 차이가 있지만 시작점과 끝나는 점을 의도적으로 일치시켰다. 내용은 조성주체의 관직명과 완성한 시기로 구성되어 있다.

右：誓願大角干主燈身賜彌 右座妃主燈身○○

左：中和三年癸卯此像夏節柒金着成

이 묵서명은 정통 한문문장의 형식이 아니라 이두와 구결 등이 있는 이른바 신라식 한문이라는 특징을 보이고 있어 해석하는 학자들마다 다소간의 견해 차이는 있다. 명문의 해석은 첫 번째 줄의 해석 여하에 따라 다양한 의견이 나올 가능성이 크지만, “서원은 대각간남에게 燈身을 주시며 오른쪽에 앉은 비에게도 등신을…… 中和三年(계묘년, 883)에 이 불상을 하절에 금까지 칠하여 조성하기를 마치었다”로 해석된다.<sup>17</sup> 불상을 금칠하여 완성한 시기는 중화 3년, 서기 883년으로 신라 제49대 憲康王 9년에 해당한다. 그 동안 몇몇 학자들은 “大角干主燈身” “右座妃主燈身”이라는 부분을,

<sup>17</sup> 필자는 남풍현 교수의 해석을 따랐다. 남풍현, 앞의 논문, p. 61.

대각간의 등신불과 우측에 앉은 비의 등신불로 해석하여 2구의 불상을 조성한 것으로 파악하기도 하였다.<sup>18</sup> 그래서 그 하나는 법보전 불상이며, 다른 하나는 크기와 형태가 거의 같은 대적광전의 불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등장하는 燈身은 불교의 보편적인 진리인 “깨달음”, 곧 正覺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불상은 1구의 비로자나불상을 조성하면서 대각간 부부의 서원을 담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함께 “右座妃”의 경우 동양의 음양설인 “左高右卑”의 원리가 적용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대각간의 불상 1구와 비의 불상 1구를 동시에 조성했다고 하는 논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런 해석이 허락된다면, 명문에 등장하는 조성주체 또는 서원 당사자인 대각간과 비는 누구일까? 지금까지 논의된 바에 의하면 불상이 제작되던 무렵의 大角干은 경문왕대부터 헌강, 정강, 진성여왕대 초까지 왕의 권력에 버금갈 정도로 정치적 위상이 높았던 경문왕의 친제 魏弘으로 보고 있다.<sup>19</sup> 妃는 大角干의 비를 지칭하므로 위홍의 부인일 것인데, 조위의 글에서 康和夫人을 위홍의 부인으로 파악했기 때문에 이곳의 대각간을 위홍으로 본다면 비는 당연히 강화부인이

<sup>18</sup> 진홍섭교수는 ‘燈身을 等身의 오자로 보고 “맹세해 바라기를 대각간님의 등신불과 그 오른쪽으로 부인의 등신불을 두 구 만드노니 중화3년 계묘년(883년) 여름에 이 상에 금칠했다”라고 해석했다. 조선일보, 2005. 7. 5; 2005년 해인사 비로자나불 학술강연회의 때 남풍현선생의 토론자로 참여한 정재영교수는 “서원한 대각간님의 등신이며,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것은(불상은) 비(妃)니림의 등신이다”로 해석하였다. 정재영, 『토론문4』, 『9세기 해인사 비로자나불의 역사성과 예술성(법보종찰 해인사, 2005. 12), p. 76; 김창겸교수는 “맹세하며 바라오니, 대각간님의 등신이며 오른쪽에 앉은 부인님의 등신을 얻음은, 중화3년 계묘년이며 여름 이불상에 금칠하기를 완성했다”라고 해석하고, 2구의 비로자나불상을 조성한 것으로 파악하였다. 金昌謙, 『합천해인사 비로자나불좌상의 大角干銘 墨書』, 『新羅史學報』4(신라사학회, 2005), pp. 302-308; 박혜인은 “서원하기를 대각간님께 등신(等身, 몸에 빛)을 주시며 오른쪽에 앉은 비에게도 등신(等身, 몸에 빛)을 주시며…중화삼년(계묘년, 883년), 이 상을 여름에 금을 칠해 입히는 것이 완성되다”라고 해석하고 대각간과 비를 상징화한 2구의 등신 불상을 만든 것으로 파악하였다. 그 상징화된 주체는 당시의 시대상을 들어 김유신과 그의 비로 보았다. 박혜인, 『신라 헌강왕대 해인사 비로자나불상의 조성과 김유신의 상징화』(동아대학교대학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09. 12).

<sup>19</sup> 魏弘은 『三國遺事』王曆 第51 眞聖女王條에 魏弘大角干이라고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곳에 기록된 대각간도 魏弘일 가능성이 크다. 『三國遺事』왕력 제51 진성여왕 第五十一眞聖女王 金氏 名曼惠 卽定康王之同母妹也 王之匹○○大角干追封惠成大王 丁未立 理十年 丁巳 遜位于小子孝恭王 十二月崩. 그런데, 일각에서는 『삼국유사』권1 왕력편에 진성여왕과 위홍을 남편으로 기록한 것을 토대로 각각 위홍과 진성여왕의 원불이라고 성급한 해석도 있으나, 재고의 여지가 많다. 왜냐하면 조위의 기록에서 헌강왕 11년(885년) 이전에 북궁 해인수라고 칭하던 것이 진성여왕 2년 위홍이 죽자 그를 해성대왕으로 추존하고 그를 위한 원당으로 삼았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三國遺事』卷2 眞聖女王居隨地條에 “第五十一 眞聖女王. 臨朝有年. … 乳母覺好夫人, 與其夫魏弘匠干等三四寵臣, 擅權撓政”이라는 기록이 보인다. 한편 김성근은 법보전 비로자나불상의 목서를 “서원합니다. 대각간님 등신하시고 오른쪽의 비님도 등신하십시오. 중화 삼년 계묘에 이 상의 하절(오동나무 부분)에 옷을 칠하고 금 옷을 입히기를 시작하여 이루었습니다”라고 해석하고, 이곳에 등장하는 대각간을 김위홍, 비를 진성여왕으로 보았다. 金成根, 『해인사 두 분 비로자나부처님에 대하여』, 『修多羅』17(海印寺僧伽大學, 2005), pp. 229-234.

될 것이다. 한편 조위의 기록에서 “을사(885)년 이전에는 北宮 海印殿이라고 하였으나 경술(890)년 이후 惠成大王 願堂으로 칭하기 시작했다”라고 하고 있는데서 알 수 있듯이, 883년경에는 공주 金曇이 해인사의 중요한 단월로 활동하던 시기임을 알 수 있다. 만약 이 시기에 목서가 씌어졌다면 비로자나불상의 조성에 김만의 역할이 기대되는 바이다. 그렇다면, 그녀가 당시 현강왕의 친정체제 구축으로 인해 일시적인 정치적 위축<sup>20</sup>에 빠져 있던 숙부 위흥에게 국면전환 내지 정치세력의 결속을 위해 일련의 중창불사를 권장했을 가능성도 있다.

### Ⅲ. 복장유물을 통해본 해인사 비로자나불상의 중수

두 구의 비로자나불상에서는 불상의 중수과정을 중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복장유물들이 발견되었다. 이 곳에서는 불상의 중수시기를 직간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자료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두 구의 비로자나불상에서 발견된 복장양상은 거의 같다. 이는 불상의 조성 이후에 중수가 거의 동시에 이루어졌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

#### 1. 고려시대의 중수

불상에서 발견된 고려시대 복장유물은 『大方廣佛華嚴經』과 『藥師琉璃光本願功德經』 등의 경전류와 『全身舍利寶篋印陀羅尼』와 『梵書摠持集』 등의 다라니류가 주축을 이루고 있다. 이들 복장유물 중 중수연대 고증에 필요한 직접적인 자료는 부족하지만 간접자료는 풍부한 편이며, 서학적 조사에 의하면 이들 자료들은 대체로 11-12세기에 간행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sup>21</sup>

우선 발견된 복장유물 중 두 전각의 비로자나불상의 중수연대 추정과 관련하여 가장 시기가 올라가는 것은 초조대장경이다. 초조대장경은 거란의 침입을 불력으로 물리치고자 고려 현종 2년(1011)에 발원하여 선종 4년(1089)에 걸쳐 완성된 고려 최초의 대장경이다. 해인사 불상에서 발견된 초조대장경은 『藥師琉璃光本願功德經』(도 4)으로, 법보전 불상에서 1축 대적광전 불상에

<sup>20</sup> 宋銀日, 「신라시대 현강왕의 친정체제 구축과 위흥」, 『신라사학보』5(신라사학회, 2005), pp. 107-1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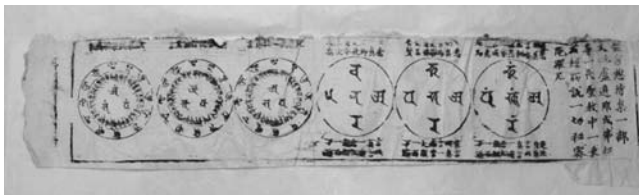
<sup>21</sup> 서병패, 「해인사 비로자나불 복장전적 조사보고서」, 『해인사 대적광전·법보전 비로자나불 복장유물 조사보고서』(법보종찰 해인사·문화재청, 2008), pp. 29-63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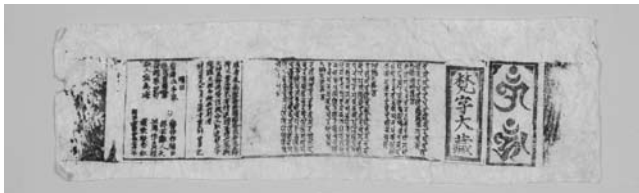
도 4 해인사 비로자나불상 복장유물 - 초조본 약사유리광본원공덕경, 1011-1089年刊



도 5 해인사 비로자나불복장유물 - 일체여래삼비밀전신사리보협다라니, 1152年刊



도 6 해인사 비로자나불복장유물 - 범서총지집, 1150年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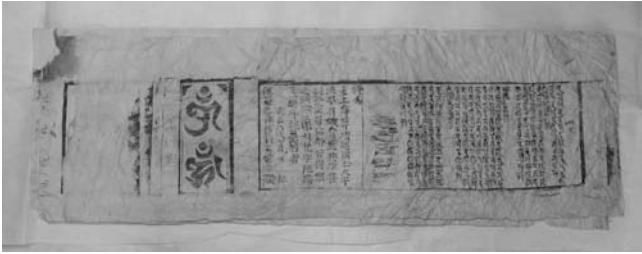
도 7 대비로자나성불경등일대성교중무상일승제경소설일체비밀다라니, 1156年刊

서 52축이 발견되어 복장 전적의 큰 축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양 구의 불상에서 53축이 발견되었다는 점, 裝訂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은 상태라는 점에서 불복장 납입을 위해 특별히 인출되었음을 시사한다.<sup>22</sup> 이 초조대장경은 몽고병란으로 불타기 이전에 인출되었기 때문에 늦어도 12세기 무렵에는 인출되었을 것이다.

그 다음은 卍字를 뒤집

은 모양의 글자 속에 범자를 4행으로 쓴 「一切如來心秘密全身舍利寶篋陀羅尼」(도 5)로, 毅宗 6년(1152) 4월에 梵學大師 通輝가 글을 써서 海眞寺에서 開板한 것이다. 그리고 안동 보광사 목조 관음보살좌상에서 발견된 것과 동일판본인 1150년 海東長安(平壤) 廣濟鋪에서 禪師 思遠이 重校하여 개판한 「梵書總持集 大毗盧遮那成佛經等一代聖教中一乘諸經所說一切秘密陀羅尼」(도 6)과 1156년 해인사 인근 사찰인 法水寺에서 重大師 資行이 간행한 「大毗盧遮那成佛經等一代聖

<sup>22</sup> 서병패, 앞의 글, pp. 35-36.



도 8 대비로자나성불경등일대성교중무상일승제경소설일체비밀다라니,  
1166년刊

敎中無上一乘諸經所說一切  
秘密陀羅尼」<sup>23</sup>(도 7), 그리고  
1166년 7월에 知陝州事使 文  
林郎 試殿中內給事 李世陝  
(?)이 발원하여 간행한 「大毗  
盧遮那成佛經等一代聖敎中  
無上一乘諸經所說一切秘密  
陀羅尼」(도 8)등 연차적으로

간행된 같은 형식의 다라니들이다. 이 3종의 다라니는 모두 의종 때 간행되었다는 공통점과 함께 모두 국왕의 장수와 나라의 태평, 법계 증생의 해탈을 위해 인출하였다는 공통된 간행동기를 가지고 있다. 이들 자료는 고려 의종 때 더욱 강화된 佛神政策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불상의 조성 내지 증수에 따른 국가 차원의 지원이 이루어졌음을 시사하는 것이다.<sup>24</sup> 왜냐하면 불복장 유물에서 의종의 수명장수와 관련된 밀교적인 다라니류가 3종 이상이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고려 의종은 국가차원에서 옛 명찰(古寺)에 대한 중창의지가 강했던 왕인데, 그 중에서도 지방의 사세가 기운 화엄종 사찰에 대한 지원이 유달랐기 때문이다. 해인사는 후삼국 쟁탈기 고려 태조 王建이 希朗大師(889-967)의 도움으로 합천지역에서 후백제 군대를 물리치고,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해인사에 토지를 기진하고 후에 국가의 중요 문서를 보관하는 장소로 삼은 데서도

<sup>23</sup> 刊記, “茲者奉爲聖壽疆國泰民安先亡師 僧父母及法界有情速證菩提之愿與 大師萬(?)轉同發信議命工彫造梵字 陀羅尼板印施無窮者 時正豐元年七月日法水寺重大師資行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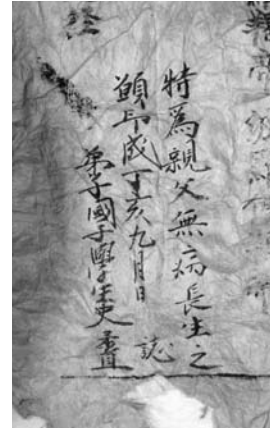
<sup>24</sup> 고려 중기까지 화엄종은 타 종단에 비해 국사·왕사를 비롯한 많은 고승대덕들을 배출하였고 이들은 대부분 왕자이거나 종실로 왕실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었듯이, 대표적인 화엄사찰인 해인사의 주불의 복장에서 국난극복을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개관된 초조대장경이 특별히 인출되어 납입된 사실과 고려 의종 때 국왕의 장수와 국민안을 기원하며 간행된 3종의 밀교적인 다라니가 복장으로 납입되었다는 것만으로도 고려왕실이 불사에 적극적인 관여와 지원이 예상된다고 하겠다. 다라니를 중시하는 고려시대 불교의 밀교종파는 神印宗과 持念業으로 둘 다 明郎으로 대표되는 신라의 밀교에서 맥을 이었는데, 이들 종파는 목종, 인종, 의종 때에는 국가고시의 呪嚩式으로 인하여 大呪嚩師가 배출되어 摠持呪師의 취지가 점점 확고하였다. 그 중에서 특히 懷正과 같은 승려는 의종의 은총을 받아 왕정에 적극 참여하는 분위기가 되었다. 남권희, 「다라니와 만다라」, 『고려시대 기록문화 연구』(청주고인쇄박물관, 2002), p. 281. 이러한 의종 때의 시대적 분위기가 해인사 비로자나불상의 복장에 반영된 것이 아닌가 한다. 이것은 안동 보광사 관음보살상의 복장에서도 비슷한 양상인데, 필자는 안동 보광사 관음보살상이 의종의 원당이었던 용수사 불상과의 관련성을 제기한 바 있다. 손영문, 「안동 보광사 목조관음보살좌상 연구」, 『안동 보광사 목조관음보살좌상』(문화재청·(재)불교문화재연구소, 2009), pp. 58-74. 참조. 의종때 불신정책과 관련해서는 황병성, 「의종대의 문관 동향과 문사들의 무인정면 인식」, 『고려 무인정면기 문사 연구』(景仁文化社, 2008), pp. 15-23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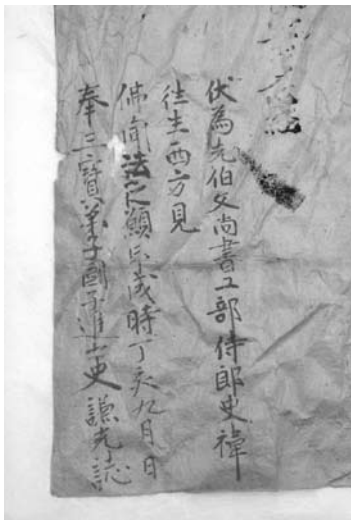
도 9 법보전 비로자나불상 복장유물 - 반야바라밀다심경, 1167년



도 10 대적광전 비로자나불상 반야바라밀다심경, 1167년



도 10-1 반야바라밀다심경 목서발원문, 1167년



도 9-1 반야바라밀다심경 주서발원문, 1167년

알 수 있듯이 의종 당시에도 정치·종교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찰임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면 이들 복장이 불상에 납입된 시기가 곧 불상의 중수시기로 볼 수 있는데, 그 해답은 복장에서 발견된 『般若波羅蜜多心經』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전은 두 불상에서 모두 발견되었는데, 전체 4면의 절첩본 형식으로 권말에 발원문을 적은 것까지 동일하다. 그런데 법보전 불상의 반야심경에는 붉은색 글씨로 적은 반면에, 대적광전 불상의 반야심경은 묵서로 적어 격을 달리 하였다. 주서로 적은 법보전 반야심경(도 9, 9-1)은 “國子進士 史謙光이 丁亥年에 돌아가신 伯父 尙書工部侍郎 史禕의 極樂往生을 기원하며 반야심경을 인출하였다”<sup>25</sup>라고 기록하고 있으며, 대적광전 반야심경(도 10, 10-1)에는 “國子學生 史柔直이 丁亥年에 父親의 無病長生을 기원하며 이 경전

<sup>25</sup> 朱書發願文, “伏爲先伯父尙書工部侍郎史禕 往生西方見 佛聞法之院印成時丁亥九月日 奉三寶弟子國子進士史謙光誌.”

을 인출하였다<sup>26</sup>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 기록이 의미하는 것은 불상의 중수 또는 복장납입과 더불어 경전을 인출, 납입하였음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 등장하는 “丁亥年”이, 곧 불상의 중수시기임을 말해주는 것이다. 즉 『반야바라밀다심경』은 “丁亥年”에 사씨들의 주도 하에 발원, 인출된 것인데, 그 가운데 尙書工部侍郎<sup>27</sup>을 역임한 사위라는 인물이 눈에 띈다. 사위는 상서공부의 차관인 정4품 시랑을 역임한 인물로 그의 사후에도 관직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 벼슬을 끝으로 공직을 마감한 인물로 생각된다. 사위는 고위관직을 역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행적은 『高麗史』나 『高麗史節要』 등과 같은 정사의 기록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나 인종대 문신인 文公裕(?-1159)의 묘지명에 한자명이 틀리지만 동일한 관직과 이름을 가진 “史偉”가 확인된다.<sup>28</sup> 관직명이 같고 “偉”와 “禕”의 한자의 음과 뜻이 같기 때문에 반야심경의 “史禕”와 문공유 묘지명의 “史偉”는 동일인물이 분명하다. 그렇게 본다면 반야심경에 등장하는 상서공부시랑 사위가 문공유의 묘지명을 지었고, 문공유의 태어난 해는 분명치 않으나 죽은 해가 1159년이기 때문에 그는 이때까지 생존하고 있었다. 조카 사겸광이 돌아가신 큰아버지 사위의 극락왕생을 발원한 시점의 ‘丁亥年’은 1159년과 가까운 1167년이며, 의종 21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2구의 불상은 늦어도 1167년경 사씨 집안의 가장 큰 어른이신 사위의 죽음을 계기로 한 차례 불상의 중수가 있었고, 이 무렵에 앞서 살펴본 경전과 다라니들이 인출되어 복장에 납입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곳에 등장하는 史氏는 史榮이 고려 예종 대 이부상서를 지낸 후 거창에 뿌리 내린 지역 토성이며,<sup>29</sup> 『세종실록지리지』 편찬 당시까지 거창 가조의 넓은 곡창지대를 기반으로 해서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sup>30</sup> 따라서 해인사 불상 중수시 지리적으로 가까운 거창 지역의 유력세력인 사씨들이 중요한 단월로 참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

<sup>26</sup> 墨書發願文, “特爲親父無病長生之願印成丁亥九月日誌 弟子國子學生史柔直.”

<sup>27</sup> 공부는 국초에 工官이라 하다가 고려 성종 14년(995)에 중앙관제를 정비하여 3성 6부를 둘 때 상서성의 밑에 6부의 하나로 세워졌다. 공부에는 정3품의 상서와 정4품의 시랑을 두었다.

<sup>28</sup> 『다시 보는 역사 편지 고려묘지명』(국립중앙박물관, 2006), 도판 27 참조.

<sup>29</sup> 위키백과사전 : <http://ko.wikipedia.org/>

<sup>30</sup> 『世宗實錄地理志』慶尙道 晋州牧 居昌縣條, “…加祚姓五, 史, 曹, 葛, 劉, 辛.”

## 2. 조선시대 비로자나불상의 중수

조선시대에도 두 불상에 대한 중수는 계속 이어졌다. 이전 시대 보다 좀더 풍부해진 문헌 기록과 발견된 복장유물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조선시대 중수는 15세말 왕실에서 주도될 만큼 조선 왕실에서도 2구의 비로자나불상은 중요하게 인식되었다. 세조와 정희왕후의 유지를 받든 인수대비와 인혜왕대비가 해인사 판전을 비롯한 여러 전각 및 불상들을 대대적으로 수보하기 이르는데, 이 두 불상도 이때 함께 중수되었다. 이 당시 납입된 복장유물을 통해서 볼 때, 조선시대를 통틀어 최대·최고 수준의 복장유물임을 알 수 있다.<sup>31</sup>



도 12 비로자나불상 복장후령통



도 12-1 대전광전 비로자나불상 복장후령통 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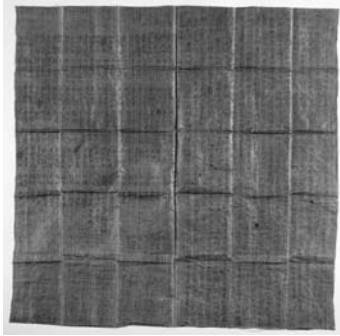


도 12-2 법보전 비로자나불상 복장후령통 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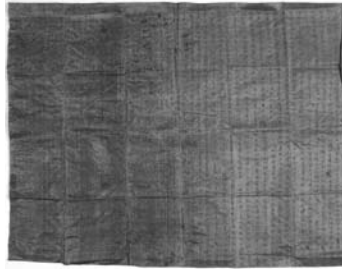
연구자의 관심사에 따라 복장유물의 핵심이 달라지겠지만, 그 핵심은 역시 심장에 해당하는 후령통(도 12, 12-1, 12-2)이다. 조선 후기에 간행된 『조상경』에는 후령통을 제작하는 방법과 납입하는 순서, 절차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해인사 법보전과 대적광전 비로자나불상에서 발견된 복장유물은 조상경의 안립 절차와 거의 일치한다. 즉 후령통 내에는 해인사기, 오보병, 무

<sup>31</sup> 복장유물 전반에 대해서는 『대적광전·법보전 비로자나불 복장유물조사보고서』(법보종찰 해인사·문화재청, 2008) 참조.

공심주, 사리병, 팔엽개, 양면원경을 차례대로 안립하고 이를 뚜껍으로 닫았다. 그리고 후령통의 밑면에는 보협인나라니와 발원문을 안립하고 마지막으로 황초폭자로 감쌌다. 오보병에 안립한 물목이나 청초홍서로 쓴 발원문의 형식이나 내용, 그리고 후령통의 재질까지 『造像經』 편찬 이전의 복장교본을 보는 듯 하다.<sup>32</sup>



도 13 법보전 비로자나불상 청초홍서 발원문, 1490년, 62.9×64.1



도 14 대적광전 비로자나불상 청초홍서 발원문, 1490년, 55×69.1cm

우선 불상의 중수와 관련하여 중요한 것은 역시 발원문이다. 두 불상에서는 똑같은 중수 발원문과 해인사기가 발견되었다. 두 불상의 발원문은 문단의 단락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 내용은 똑같다. 이 중수발원문(도 13, 14)은 弘治 3年(成宗 21, 1490)에 學祖大師가 지은 것으로,<sup>33</sup> 그 내용은 세조 때 대장경을 인출하고 판당을 50여 칸으로 증창하게 된 연유, 그리고 仁粹·仁惠 두 大妃의 지원 아래 진행된 해인사 증창불사와 관련된 사실을 중요하게 담고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해인사 불상의 고려 이전의 중수기록은 남기지 않고 있다.

…弘治元年 戊申(성종 19, 1488) 봄에 內需司에 명하여 쌀 1천5백 섬, 무명 80여동, 역승 3백 여 인을 시주하여 옛 건물을 철거하고 새롭게 지으니 넓고 좁음이 알맞았다. 겨우 판자만 들어가서 수호에 편리하고 오직 30여간만 지었는데 이어서 ‘普眼堂’이라 이름하였다. 또 판당의 불전을 철거하여 3간을 寂光殿 옆에 옮겨 영건하였는데 ‘眞常殿’이라 이름하였다. 또 祖堂을 철거하여 眞常

<sup>32</sup> 손영문, 「大寂光殿·法寶殿 木造毘盧遮那佛坐像 및 腹藏候筒」, 『대적광전·법보전 비로자나불 복장유물조사 보고서』(법보종찰 해인사·문화재청, 2008), pp. 11-28 참조.

<sup>33</sup> 법보전 비로자나불상의 복장은 90년대 도굴꾼에 의해 복장이 훼손된 적이 있는데, 중수발원문은 2001년 4월 문화재 절도사범들이 검거되면서 해인사중수문은 서울지검에서 2001년 4월24일 해인사(주지 세민)에게 인계하였다. 손영문, 위의 글, p. 19 註19 참조.

殿 옆에 옮겨 영건하였는데 ‘解行堂’이라 이름하였다. 기와 2백餘納을 굽고, 이듬해(1489) 봄에 쌀 천 여섬, 무명 70여 동, 역승 2백여 인을 시주하여 僧堂을 다시 창건하였는데 ‘탐진선당’ ‘궁현상실’ ‘감물당’이라 이름하였고, 그리고 毘盧遮那, 유리전 약사여래, 진상전 비로자나, 普眼堂 毘盧遮那 및 文殊菩薩 등의 像을 修補하였다…<sup>34</sup>



도 15 법보전 비로자나불상 해인사기, 1490년, 30,6×33,8cm



도 16 대적광전 비로자나불상 해인사기, 1490년, 30,3×34,8cm

이 기록을 통해 현재의 법보전 불상은 당시 보안당에 모셔져 있던 비로자나불상으로 추정되며,<sup>35</sup> 대적광전 비로자나불상 보다 1년 전인 1489년에 문수보살상과 함께 수보되었음을 알 수 있다. 후령동 내에서 발견된 ‘해인사기’(도 15, 16)의 내용 역시 대적광전 비로자나불상에서 발견된 것과 내용이 동일하여, 이 때 수보, 개금된 여러 불상 중에 법보전 비로자나불상도 포함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sup>36</sup> 다만 불상의 수보·개금연대가 중수발원문과의 1년의 시차가 있다. 그것은 불상의 개금연대와 복장을 완전히 갖추고 낙성한 시기의 시차로 보인다.

1490년에 수보, 개금된 후 법보전 비로자나불상은 280여년이 지난 1773년에 개금이 이루어

34 「重修發願文」, “…弘治元年戊申春 命內需司施米千五百石 綿布八十餘同 役僧三百余人 撤日以新之寬窄得中僅容板子 便於守護只構三十間 仍名曰普眼堂 又撤板堂佛殿三間移營於寂光殿側 名曰真常殿 又撤祖堂移營於真常殿側 名曰解行堂 燹瓦二百余納 翼年己酉春施米千余石綿布七十余同 役僧二百余人 重創僧堂名曰探真禪堂名曰窮玄上室名曰鑑物堂及三寶位修補 講堂名曰無說堂及修補毘盧遮那 瑠璃殿藥師如來 真常殿毘盧殿毘盧遮那 普眼堂毘盧遮那及文殊菩薩等像…”

35 조위의 「해인사중수기」에 의하면, “무신년(1488) 봄에 내수사의 쌀과 옷감을 희사하며, 도료장 박증석 등을 보내어 장경판당을 30칸으로 중개축하고 ‘普眼堂’이라 이름하였다”라는 기사가 보인다. 曹偉, 『海印寺重修記』, 『海印寺古蹟』

36 皇明弘治三年庚戌海印寺記, 貞熹王后尹氏聿追 先志大藏殿用是交隣雨漏朽破則亦是民弊故 擬欲改創而未遂 薨逝仁粹王大妃韓氏仁惠王大妃韓氏 王妃尹氏敬奉 先后遺教弘治元年戊申乃命比丘學祖幹其事 改創板堂則至秋功訖諸殿舍未及重修越 明年庚戌毗盧殿改營諸殿舍或修補改蓋 或改造主佛則重修改金類落文殊普賢 改造其餘諸像並比(=皆)修補改金

졌고<sup>37</sup>, 1885년에도 개금이 있었다. 근래에 들어서는 1966년<sup>38</sup>과 2000년, 그리고 2005년에도 개금중수가 있었다.

그러나 법보전 불상과 거의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해인사 대적광전 비로자나불상은 1167년의 기록과 1490년에 중수한 기록만 남아 있을 뿐, 이후의 중수 사항은 알 수 없다. 다만 1971년 智冠스님(당시 해인사 주지)의 주도 아래 이루어진 대적광전 補修佛事 時 改금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법보전 불상과 마찬가지로 2005년에 개금 중수가 있었다.

<sup>37</sup> 藏經閣三尊改金記, “夫寺之創板之設 著在寺誌 不必架壘 而但閣中所安 毘盧佛 文殊 普賢三尊像 皆面彩漫漶 體亦有傷 見者聞者 幾多噴舌 而終鮮拔毛 昨年秋 有安義處士 河脫雲兩主 到此 目其尊像 慨然發心 願施青銅一百六十貫 贊和上人 自募檀門 又得鵝眼數百餘兩 時住持任奇 管其物 時僧統謹學 外以護 前任持寶行 內以監 三人同力 矢心邀良工雪訓 一箇月而告功 時緣到來 不期而成 驗於此矣 坐服乃京城內宮所施獻也 金剛門所安文殊普賢破傷亦有甚於閣中 二尊 且賴右人之力 修補改彩 煥如新成 亦寺之一大幸矣 事訖大衆謝其功 三人不居其功歸於上人 上人不有之 歸於處士 處士亦不有之 歸於尊像 敢問大衆 尊像之功耶 處士之功耶 上人之功耶 三人之功耶 盖尊像之功 不待言而人皆知 六人之功 非文無以昭示於後人之目 於是記之揭壁 乾隆三十八年 癸巳 仲春 龍波病 夫道周 誌 門人 義成書 願刻 前判司 管榮 緣化 秩良工 雪訓 施主 秩坐服 施主 尚宮 金氏 改金 施主 處士 河脫雲兩主” 李智冠 編著, 앞의 책, pp. 94-95.

<sup>38</sup> 1966년 10월 개금 때 발견된 발원문은 다음과 같다. “願文, 南無中方華藏世界毘盧佛 五峰聖主 萬行願王 鑑察度愆 心 仰祈妙援者 法藏比丘六八 藥師如來十二 皆所巨大拔滯 使莫非博施濟衆 今我大心亦復如是 非同小乘獨往而已 世世長作法流之砥柱 念念不離金色之相好 一乘頓悟 類香象之渡河 二利圓修 若飛鳥之具翼 三聚戒 八萬行護 爲嚴身甲 四威儀 二六時 緊服精進衣 五宗風大揚 永作人天之眼目 六度月普照 常行菩薩之道業 七覺支八正道分等 三十七助道品 一修一學 九品蓮臺與含靈 而共證阿鞞跋致 十方世界隨有緣 而或作菩提佛事 百億化三十二應塵墨刹土 衆施巨無畏 千葉蓮萬行華 戒定慧解脫香 與之普薰 有利益 無不興崇兮 疾疫藥草 飢饉稻粱 於冤親平等慈悲 兮 暗夜光明 貧窮伏藏 聞我名 見我相 披毛戴角 飲食銅血生淨土 揚佛化 承佛力 蠅飛蝸動 水陸空行成正覺 上來所修功德海 回向三處悉圓滿 卽說呪曰 唵 사마라 사마라 미마나 사라마하 자가라바 홈 和尙 圓雲準莢, 僧統寬虛宜官 . 維邦 青蓮夏水, 三綱 書記 太燁, 三甫 碩珍, 直使 大彥, 證明 秋淡井幸 曇華普淨 相虛慧造, 誦呪 敬虛平珍, 金魚 繡龍琪銓 友松廷圭 錦雲肯律, 化主 茵峯鶴西, 供司 玩奇 文浩, 持殿 玩城在華 斗明 敬祐 漢錫 都監 寬虛宜官, 別座 一于 施主 吳大光華, 尙宮 朴明德華, 尙宮 千大德慧, 尙宮 鄭廣度華, 尙宮 朴法性華, 判書 趙康夏, 比丘 濟庵應河 . 己卯生吳氏, 淸信女 皮氏寶樹行, 永珠 道淨 太恩 比丘尼 敬典, 光緒十一年乙酉八月初七日謹封”. 李智冠 編著, 위의 책, pp. 99-100 재인용.

#### IV. 비로자나불상의 형식 및 양식적 특징



도 17 대적광전 비로자나불좌상, 나말여초,  
높이 125cm, 어깨폭 64cm,  
무릎폭 95.5cm



도 18 법보전 목조비로자나불좌상, 통일신라,  
높이 126cm, 어깨폭 63.5cm,  
무릎폭 95.5cm

두 불상의 형식 및 양식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는 해인사의 창건연대와 목서가 기록된 9세기, 그리고 중수가 이루어진 1167년과 1490년경의 불상들과의 세밀한 비교 고찰이 필요하다. 이러한 비교 고찰을 통해서, 이 두 구의 불상이 위치하는 양식적 편년도 어느 정도 가능하리라 생각한다.

우선 두 상은 얼굴 모습에서 대적광전 비로자나불상(도 17)이 법보전 비로자나불상(도 18)보다 둥글고 볼륨이 좀더 강조되어 부드러운 이미지이며, 이에 비해 법보전 상은 약간 굳은 모습이다. 신체의 형태에서도 대적광전 상이 법보전 상보다 다소 볼륨이 강조되어 우람하고 장대한 느낌이다. 이외 백호의 크기나 세부 옷 주름 표현, 접목방식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일 뿐 유사한 양식적 특징을 보여준다. 이곳에서 보이는 세부의 차이가 한 불상을 모델로 후대에 모방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시대적 차이인지, 동일시기라도 작가의 습관이나 역량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인지, 아니면 조선후기 동일 작가가 조각한 삼존불상에서도 종종 미세한 차이를 보이는데, 이 역시 이러한 경향에서 기인하는 것인지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도 19 법보전 목조비로자나불좌상 얼굴



도 20 대전광전 목조비로자나불 얼굴

법보전 불상은 높이 126cm, 어깨 폭 64cm 무릎 폭 97.3cm 이며, 대전광전 불상은 높이 125cm, 어깨 폭 63.5cm, 무릎 폭 95.5cm로 거의 같으며, 머리의 표현, 착의형식, 수인, 형태나 비례, 조형미 등에서도 두 구의 불상은 언뜻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유사한 형태적·양식적 특징을 보인다.



세부에서 다소의 표현 차이는 있지만, 두 구의 비로자나불상의 머리는 섬세하게 조각된 동글동글한 나발로 촘촘히 부착하였다.(도 19, 20) 地髮部에서 육계로 이어지는 곡선이 급하여 전체적인 모양은 마치 팽이모양을 연상시킨다. 머리에는 반원형의 중앙계주와 원통형의 정상계주를 새겨 넣었다. 이마는 넓고 평평하며 양 미간 사이에 백호를 도드라지게 표현하였다. 눈썹은 관자놀이 부근에서 کوت날 쪽으로 완만히 뻗어 내려 자연스럽게 연결되었다. 가늘고 긴 눈은 사바세계를 굽어보듯 자비로운 모습이다. 적당한 길이의 인중은 명확하게 표현하였고, 입술 역시 코의 폭만큼 자리 잡아 사실적으로 조각하였다. 양 뺨은 팽팽하게 살이 올라 있고 턱 아래로는 군살이 잡혀있다. 전반적으로 얼굴에 흐르고 있는 표정은 사유에 잠긴 듯 차분한 느낌이다.

표 1 상호 표현의 비교

통일신라		고려		조선	
경주 석굴암 본존 불상, 8세기 중엽	영주 비로사 석조 비로자나불좌상, 통일신라	서산 개심사 목조 아미타여래좌상, 고려후기(1280년 중수)	서울 개운사 목조 아미타여래좌상, 고려후기(1274년 중수)	영주 흑석사 목조 아미타여래좌상, 1458년	경주 왕룡사원 목조 아미타여래좌상, 1466-1474년

양감이 강조되면서도 사유에 잠긴 이상화된 둥근 얼굴은 天梯山 2窟의 如來坐像이나 山西 仏光寺 塑造如來坐像(857년) 등 唐나라의 불상들과, 그리고 통일신라 전성기의 석굴암 석조여래좌상, 갈항사지 석조여래좌상 등 8세기 불상을 전통을 따르면서도 비로사 석조아미타여래좌상과 같이 9세기대의 다수의 불상들과 친연성이 확인된다. 중수 복장에 나타나는 1167년 보다 다소 늦은 시기인 개심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1280년 중수)이나 개운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1274년 중수)의 가름한 형태의 얼굴에 두툼한 눈두덩, 강인한 눈매, 높고 큼직한 매부리코에서 오는 이국적이면서 엄숙한 얼굴과도, 또 조선 초기의 흑석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이나 왕룡사원 목조아미타여래좌상과 같이 양감이 절제된 수척한 얼굴과도 확실히 구별된다.(표1 참조) 물론 통일신라시대 불상에서 찾기 어려운 중앙계주와 정상계주는 1490년에 수리된 것으로 보인다.

표 2 귀 표현의 비교

해인사		통일신라		고려	
					
법보전 비로자나불상	대적광전 비로자나불상	경주 안계리 여래좌상, 통일신라	대구 동화사 비로암 비로자나불좌상, 863년경	서산 개심사 아미타여래좌상, 1280년 중수	서울 개운사 아미타여래좌상, 고려 후기(1274년 중수)

어깨까지 닿을 듯하게 표현한 긴 귀는 입체적이고, 아리비아 숫자 3자 형태의 이륜의 윤곽도 뚜렷하고 사실적이다. 귓구멍은 윗구멍은 둥글고 그 아래로 물방울 형태로 처리하여 마치 열쇠구멍 모양으로 표현하였으며, 상하각의 표현도 비교적 뚜렷하다. 길게 늘어진 귓불에는 물방울 모양의 깊은 홈이 파져 있다. 이러한 귀의 형태와 표현 방식은 경주 안계리 석조여래좌상이나 대구 동화사 비로암 석조비로자나불좌상, 흥천 물결리 석조비로자나불좌상 등 통일신라시대 불상에서 자주 보이는 특징이다. 고려 후기의 서산 개심사 아미타불상이나 개운사 아미타불상의 귀와도 비교가 가능하겠지만, 개심사 불상이나 개운사 불상의 귀는 이륜의 곡선이 완만하고 귓구멍도 타원형으로 해인사 불상의 동그랗고 뚜렷한 귀와는 차이가 있다.(표2 참조) 물론 귀는 따로 만들어 탈 부착이 가능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겠지만 하나의 참고자료는 된다.

수인은 치켜세운 왼손 검지를 오른손으로 감싸 쥐 형태의 지권인으로, 오른손을 가슴선 부근에 둔 것이 특징이다. 왼손 손목을 꺾어 손바닥이 보이는 지권인의 형태는 日本 東京國立博物

표 3 수인의 비교

해인사		통일신라		
				
법보전 비로자나불상	대적광전 비로자나불상	금동비로자나불입상, 통일신라, 日本 東京國 立博物館	불국사 금동비로자나 불좌상, 통일신라, 국 보 제26호	동화사 비로암 석조비 로자나불좌상, 863년 경

館에 소장된 8세기 후반의 금동비로자나불입상이나 불국사 금동비로자나불좌상에서 볼 수 있으며,<sup>39)</sup> 동화사 비로암 석조비로자나불좌상(863년경)이나 도피안사 철조비로자나불좌상(865년) 등 9세기 중엽경의 불상에서도 아직 완전히 손바닥을 가슴 쪽으로 붙이지 않고 있다.(표3 참조) 지권인의 변화양상이 시기·지역적인 것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는 좀더 연구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도 21 경주 남산 미륵곡 석조여래좌상, 통일신라, 보물 제136호



도 22 영주 비로사 석조아미타여래좌상, 통일신라, 보물 제 1996호

한편 삼도의 표현은 뚜렷하고 부피와 근육이 강조된 어깨는 당당하다. 불신에는 편단우견으로 대의를 걸쳤다. 등을 돌아 온 대의가 가슴 중앙에서 한번 반전하여 왼쪽 어깨 뒤로 넘겼다. 특히 왼쪽 어깨 부근에 자리 잡은 삼각형의 넓은 띠 주름을 중심으로, 좌우로 겹쳐진 모습이라든가 어깨 위에 표현된 두 가닥의 짧은 주름, 그리고 팔꿈치의 겹쳐진 주름 등

<sup>39)</sup> 이숙희, 「통일신라시대 비로자나불상의 신라적 변용과 특성」, 『美術史學研究』250·251(韓國美術史學會, 2006), p. 61.

이 특징이 있다. 이곳에서 보이는 삼각형의 층단 주름과 불신에 표현된 세밀한 주름은 남산 미륵곡 석조여래좌상(도 21)과 유사점이 있으나, 보리사 상의 세밀하고 촘촘한 주름 표현에 비해 한결 간결해진 느낌이다. 또 어깨 위의 몇 가닥의 짧은 주름은 석굴암 석조여래좌상, 광주 약사암 석조여래좌상, 영주 비로사 석조아미타여래좌



도 23 법보전 비로자나불좌상 뒷면



도 24 대적광전 비로자나불좌상 뒷면

상(도 22), 괴산 각연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 등 8세기 중엽 경의 불상부터 9세기 말경의 불상에 이르기까지 폭 넓게 나타난다. 이러한 주름의 발생은 아마도 석굴암 불상의 생략적인 주름 표현 방식이, 이후 이 불상을 모델로 삼은 불상 제작자들이 관습적으로 따라하면서 생긴 주름으로 이해된다.

표 4 배면 처리의 비교

통일신라			고려	조선	
					
창원 불곡사 석조 비로자나불좌상, 통일신라	홍천 물걸리 석조 비로자나불좌상, 통일신라	동화사 비로암 석조 비로자나불좌상, 863년경	서산 개심사 목조 아미타여래좌상, 1280년중수	경주 왕룡사원 목조 아미타여래좌상, 1466-1474년	봉화 청량사 목조 지장보살좌상, 1576년

불상의 뒷면(도 23, 24)에도 일정한 간격으로 입체적이면서도 탄력적인 주름을 생생하게 새겼는데, S자형으로 반전하며 드리워진 대의의 끝자락이 왼쪽 측면으로 둥글게 돌아 간 모습은 창원 불곡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이나 동화사 비로암 석조비로자나불좌상, 홍천 물걸리 석조비로자나불좌상 등 9세기 중·후반 불상들과 비교되는 통일신라 시대적 요소이다. 즉 고려 후기나



도 25 법보전 비로자나불좌상 무릎



도 26 예천 청룡사 석조여래좌상, 통일신라, 보물 제424호

표 5 무릎 주름의 비교

통일신라		고려시대	고려
			
금동여래좌상, 통일신라, 日本 長崎 黒瀨 觀音堂	불국사 금동아미타여래좌상, 통일신라	안동 보광사 목조관음보살좌상 무릎, 고려후기	경주 왕룡사원 목조아미타불좌상, 1466-1474년

조선시대 불상에서 보이는 삼각형으로 마무리 한 끝단 처리와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표4 참조) 따라서 재질에 따른 표현의 차이는 다소 있지만, 해인사 불상은 통일신라시대의 시대적 정서와 양식을 공유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대의 주름은 볼륨 있는 신체에 유기적으로 밀착되어 탄력적이며 음양의 운율이 한껏 발휘된 입체적인 주름이 물결치듯 속도감 있게 조각되어 생동적이다. 특히 오른쪽 발목에서 요철이 있는 좁고 넓은 띠 주름이 팽팽하게 감겨 속도감 있게 흘러내린 모습과 무릎 아래로 자연스럽게 펼쳐진 옷주름(도 25)은 통일신라시대 조각에서 일반적으로 보이는 부채꼴 형태의 주름(도 26)과는 확연히 구별된다. 재질과 제작방식이 달라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겠지만, 이렇게 펼쳐진 주름은 나가사키(長崎) 구로세(黒瀨) 觀音堂 금동여래좌상이나 2008년 개금 중 발견된 기림사 소조 여래좌상, 그리고 불국사 금동아미타여래좌상, 보림사 철조비로자나불좌상 등과 매우 흡사하여 부채꼴 주름과 더불어 재질을 불문하고 통일신라시기에 많이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한편 시기를 내려 고려 후기의 안동 보광사 목조관음보살좌상이나 조선 전기 경주 왕룡사원 목조아미타



도 27 법보전 비로자나불좌상 무릎 측면



도 28 예천 청룡사 석조여래좌상 측면, 통일신라

여래좌상에서도 이와 유사한 면이 없지 않으나 형식화되거나 간결해진 느낌이어서 시대적 차이를 느낄 수 있다.(표5 참조) 이와 함께 결가부좌한 오른발 주위로 짧고 간결하게 펼쳐진 3가닥의 인상적인 주름(도 27)은 비로사 석조아미타여래좌상이나, 부석사 자인당 석조비로자나불좌상, 그리고 예천 청룡사 석조여래좌상(도 28) 등 9세기대 불상에서 확인되는 특징이어서 이 불상의 편년에 도움이 된다.

이상의 분석에서 2구의 불상은 형식·양식면에서 통일신라 전성기 불상의 전통을 따르고 있는 불상임에 틀림없기 때문에, 그 제작시기도 법보전 불상은 늦어도 목서명에 기록된 883년 이전에는 분명히 조성되었을 것이다. 대적광전 불상 역시 9세기 불상들과 양식적으로 상통하고, 특히 법보전 불상과 모든 면에서 유사하기 때문에 거의 같은 시기에 조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두 불상의 제작시기와 관련하여 고려해야 되는 것은 임남수 교수의 X-RAY를 통한 제작 기법 분석과 박상진 교수의 질량분석 이온빔가속기 분석 값에 나이트 수로 보정한 분석 결과이다.<sup>40</sup> 우선 임남수 교수의 조성기법 분석에서 법보전 불상은 머리와 몸통을 만들고 양 어깨와 손 등을 접합시킨 接木造佛像이고, 대적광전 불상은 법보전 불상과 마찬가지로 접목조 기법으로 제작되었으나 복부를 별재로 만들어 끼우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법보전 불상처럼 거칠게 속을 파낸 예는 국내에서 찾기 힘들지만, 대적광전 불상과 같이 복부를 별재로 만들어 끼우는 형식과 깔끔하게 속을 파낸 방식은 안동 봉정사 관음보살상과 유사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대적광전 불상은 법보전 불상과 안동 봉정사 불상의 사이에 제작되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박상진 교수의 분석에서 법보전 불상은 빠르면 A.D. 740년 전후 늦으면 A.D. 950년 전후로 추정하였고, 대적광전 불상은 이 보다 늦은 A.D. 930년 전후한 시기에서 A.D. 1090년 전후한 시기

<sup>40</sup> 林南壽, 『海印寺佛像調査報告』(해인사, 2005), pp. 6-8; 박상진, 앞의 논문, pp. 45-52.

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하였다. 물론 비슷한 시기에 조성된 불상에 대한 충분한 과학적 조사 데이터가 우선 축적되어야겠지만, 해인사의 두 구의 비로자나불상과 같이 양식상 비슷한 불상의 선후 문제를 결정짓는 데는 이러한 과학적 조사방식이 어느 정도 유효해 보인다.

위의 두 가지 방식의 과학적 조사 결과를 토대로 본다면, 대적광전 불상은 법보전 불상보다 다소 늦은 시기에 조성되어 1167년에 법보전 불상과 함께 重修되었음을 시사한다. 곧 이는 신라 말에서 고려 초에 걸쳐 석굴암 본존상을 따르는 복고적인 경향의 불상들이 여러 곳에서 조성되고 있기 때문에,<sup>41</sup> 대적광전 불상도 그러한 측면에서 나말여초의 복고주의 경향을 타고 법보전 불상을 토대로 새롭게 제작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그 시기는 법보전 불상이 제작되던 시기와 그다지 멀지 않은 시점일 것이며, 고려 태조가 후삼국 통일의 공이 큰 희랑대사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해인사에 중창불사에 필요한 토지를 하사한 시점이 현재로서는 가장 가능성이 높다.<sup>42</sup>

## V. 맺음말

이상과 같이 애장왕대에 창건된 해인사는 창건 이래 국가의 중요한 사원으로 역할을 하며 시대를 불문하고 발전을 거듭해 왔다. 사찰 중창의 배후에는 통일신라시대의 애장왕, 현강왕, 진성여왕, 그리고 고려시대의 태조와 의종, 그리고 사씨로 대표되는 지방토호 세력, 조선시대에는 세조대왕을 비롯한 정희왕후, 인수대비, 인혜왕대비 등 왕실 내명부의 최고품계의 妃嬪에 이르기까지 해인사 중창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음을 각종 사적자료와 복장유물을 통해 알 수 있었다. 한편 본 글에서 지면의 제약 상 자세히 다루지는 못했지만 불상에서 발견된 복장유물은 당시 시대상과 문화상을 또렷이 담고 있는 유물이자, 최고·최대 수준의 복장 정수를 보여주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선 해인사는 순응에 의해 징관(738-839)의 선교일치적 경향의 새로운 화엄사상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창건된 사찰로, 사찰의 창건시기와 관계없다 하더라도, 이 두 구의 비로자나불

<sup>41</sup> 崔聖銀, 「高麗初期 廣州鐵佛坐像 研究」, 『佛教美術研究』2(동국대학교 불교미술문화재연구소, 1995), pp. 31-32.

<sup>42</sup> 해인사는 『伽伽山海印寺古籍』에는 希郎大師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고려 태조가 田五百結을 헌납하고 이를 기반으로 사찰을 重新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아마도 「가야산해인사고적」이 간행되던 天福 8年(943)을 전후한 시기에 희랑대사를 중심으로 사찰에 대한 대대적인 중창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상은 해인사의 창건 정신이 오롯하게 반영되어 있는 불상임에는 틀림없다. 일부 수리된 것으로 생각되는 부분을 제외하면, 이 불상은 머리와 동글동글한 나발의 표현, 양감이 강조된 둥근 얼굴, 육감적이면서 균형 잡힌 신체, 신체에 유기적으로 밀착된 탄력과 생동감 넘치는 옷 주름 등에서 통일신라시대 9세기 불상과 양식적 친연성이 확인될 뿐만 아니라 통일신라 불상의 전통을 따르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결론적으로 법보전 불상은 늦어도 목서명에 쓰여 있는 883년 이전에는 조성되었을 것으로 추정하였고, 대적광전 불상은 양식과 과학적 조사 결과를 토대로 종합적으로 추론하면 법보전 불상과 거의 비슷한 시기에 조성되었거나 이 보다 조금 늦은 고려 초 희랑대사의 해인사 중창 시점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본 글에서 법보전 불상의 목서명에 상응하는 복장유물과 관련 자료가 발견되지 않아 불상의 연대를 목서와 동일한 연대로 확정하지 못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그러나 두 불상의 중수가 크게 첫번째는 고려왕실을 비롯한 거창 가조지역을 기반으로 성장한 史氏 勢力이 중심이 된 1167년의 중수, 두 시점으로, 두번째는 조선왕실을 중심으로 한 1490년의 중수로 그 층위를 분명히 밝힌 점은 큰 성과라 하겠다. 이를 통해 이 두 불상의 하한연대가 아무리 늦어도 1167년이라는 사실이 확인된 만큼, 이 두 불상은 현존 최고의 목조 불상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한국조각사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법보전 불상이 1,100여년의 세월과 수차례의 보수, 개금을 견뎌왔음에도 너무도 생생하게 남아 있는 내부 목질이나 목서에 대한 의문점들은 미술사적, 서예사적, 나아가 과학적인 교차검증을 통해 학문 간의 합의를 이루어 나가야 할 과제라고 본다.

\*주제어(key words) \_ 法寶殿(Beopbojeon Hall), 大寂光殿(Daejeokgwangjeon Hall), 中和3年(3rd Zhonghe year), 毘盧遮那佛(Vairocana Buddha), 魏弘(Wihong), 眞聖女王(Queen Jinseong), 順應(Suneung), 毅宗(Uijong), 史偉(Sa Wi), 般若波羅蜜多心經(Heart Sutra), 仁粹大妃(Queen Dowager Insu)

■ 투고일 2011년 2월 21일 | 심사개시일 2011년 3월 12일 | 심사완료일 2011년 4월 16일 ■

## 참고문헌

『三國史記』

『三國遺事』

『世宗實錄地理志』

『다시보는 역사 편지 고려묘지명』, 국립중앙박물관, 2006.

崔致遠 撰, 『新羅迦耶山海印寺善安住院壁記』, 『東文選』卷之六十四記

崔致遠 撰, 『華嚴經社會願文』, 崔英成譯註『崔致遠全集』2, 亞細亞文化社, 1999

撰者未詳, 『伽伽山海印寺古籍』, 943년경.

『國內 最古 9世紀 統一신라 木造佛像 9세기 해인사 비로자나불의 역사성과 예술성』, 법보종찰 해인사, 2010. 12.

朝鮮總督府, 『양양사림사홍각신사비』, 『조선금석총람』上, 1919.

朝鮮總督府, 『慶州崇福寺碑』, 『朝鮮金石總覽』上, 1919.

李智冠 編著, 『伽伽山海印寺誌』, 伽山文庫, 1992.

황병성, 『고려 무인정권기 문사 연구』, 景仁文化社, 2008.

강우방, 『海印寺 木造 毘盧遮那佛像考』, 『9세기 해인사 비로자나불의 역사성과 예술성』, 법보종찰 해인사, 2010. 12.

權英五, 『김위홍과 진성왕대 초기 정국 운영』, 『大丘史學』76, 大丘史學會, 2004. 8.

金成根, 『해인사 두 분 비로자나부처님에 대하여』, 『修多羅』17, 海印寺僧伽大學, 2005.

金由卿, 『新羅·高麗毘盧遮那佛像의 研究』, 梨花女子大學校大學院 美術史學科 碩士學位論文, 1988. 5.

金鎮國, 『新羅下代 海印寺와 王室』, 東國大學校大學院 史學科 碩士學位論文, 2004.

김상현, 『九世紀 후반의 海印寺와 新羅 王室의 후원』, 『新羅文化』28, 동국대학교신라문화연구소, 2006.

金昌謙, 『합천 해인사 비로자나불좌상의 '大角干銘' 墨書』, 『新羅史學報』4, 신라사학회, 2005.

남권희, 『다라니와 만다라』, 『고려시대 기록문화 연구』, 청주고인쇄박물관, 2002.

남풍현, 『영태이년명 석조비로차나불상조상기의 이두문 고찰』, 『신라문화』5,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88. 12.

남풍현, 『중화삼년에 조성한 해인사 불상의 내면 묵서 해독』, 『9세기 해인사 비로자나불의 역사성과 예술성』, 법보종찰 해인사, 2005. 12.

文明大, 『智拳印 毘盧遮那佛像의 成立問題와 石南巖寺 毘盧遮那佛像의 研究』, 『佛教美術』11, 동국대학교박물관, 1992.

- 박상진, 「해인사 목조 비로자불의 재질과 제작연대 분석」, 『9세기 해인사 비로자나불의 역사성과 예술성』, 법보종찰 해인사, 2010. 12.
- 박혜인, 「신라 헌강왕대 해인사 비로자나불상의 조성과 김유신의 상징화」, 동아대학교대학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09.12.
- 서병패, 「해인사 비로자나불 복장전적 조사보고서」, 『해인사 대적광전·법보전 비로자나불 복장유물 조사보고서』, 법보종찰 해인사·문화재청, 2008.
- 손영문, 「안동 보광사 목조관음보살좌상 연구」, 『안동 보광사 목조관음보살좌상(문화재청·제)불교문화재연구소』, 2009, pp. 58-74.
- 宋銀日, 「신라하대 헌강왕의 친정체제 구축과 위홍」, 『신라사학보』5, 신라사학회, 2005.
- 송은일, 「眞聖女王代(三代目)의 修撰」, 『歷史學研究』27, 湖南史學會, 2006. 7.
- 李培鎔, 「新羅下代 王位繼承과 眞聖女王」, 『千寬宇先生還曆紀念 韓國史學論叢』, 千寬宇先生還曆紀念 韓國史學論叢刊行委員會, 1985.
- 이숙희, 「통일신라시대 비로자나불상의 신라적 변용과 특성」, 『美術史學研究』250·251, 韓國美術史學會, 2006.
- 林南壽, 「海印寺佛像調查報告」, 2005.
- 張日圭, 「승복사비명과 경문왕계 왕실」, 『歷史學報』192, 歷史學會, 2006. 12.
- 정병삼, 「華嚴十刹의 형성과 海印寺」, 『한국불교에 미친 해인사의 역할과 나아갈 방향』, 법보종찰 해인사, 2002.
- 정재영, 「토론문 4」, 『9세기 해인사 비로자나불의 역사성과 예술성』, 법보종찰 해인사, 2005. 12.
- 曹庚時, 「新羅 下代 華嚴宗의 構造와 傾向」, 『역사와 세계』13, 효원사학회, 1989.
- 崔聖銀, 「高麗初期 廣州鐵佛坐像의 研究」, 『佛教美術研究』2, 동국대학교 불교미술문화재연구소, 1995.
- 崔源植, 「新羅 下代의 海印寺와 華嚴宗」, 『韓國史研究』49, 韓國史研究會, 1985. 6.
- 하일식, 「해인사전권과 묘길상탑기」, 『역사와 현실』24, 한국역사연구회, 1997.

## 국문초록

해인사에는 한국조각사에 있어서 가장 주목해야 할 2구의 목조비로자나불상이 전해오고 있다. 그 동안 이 2구의 불상의 조성시기에 대해 해인사가 조선 왕실의 지원을 받아 대대적으로 중창되던 시기(1488-1490)에 만들어진거나 중수된 불상정도로 여겨왔다. 그런데 두 구의 불상에서 발견된 복장유물과 법보전 불상에서 발견된 묵서명은 불상의 조성 연대가 늦어도 고려 1167년 이전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즉 해인사는 신라 애장왕대 창건된 이래 국가의 중요한 사원으로 역할하며 시대를 불문하고 발전을 거듭해 왔다. 이미 각종 寺蹟資料를 통해 알려졌듯이 중창의 배후에는 통일신라시대의 애장왕, 현강왕, 진성여왕, 그리고 고려시대의 태조, 조선의 세조대왕대의 왕실이 있었다. 특히 복장유물을 통해 고려 의종과 거창 가조지역을 기반으로 성장했던 史氏 세력이 불상 중수의 중요한 단월로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조선시대에는 세조왕대의 왕실 내명부의 最高品階의 妃嬪들이 불상 중수를 주도하고 있음을 재차 확인할 수 있었다.

해인사는 순응에 의해 장관(738-839)의 禪敎一致的 경향의 새로운 화엄사상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창건된 사찰로, 이 2구의 비로자나불상은 사찰의 창건시기와 관련짓지 않더라도 해인사의 창건 정신이 옳게 반영되어 있는 불상임에 틀림없다. 일부 수리된 것으로 보이는 부분을 제외하면, 이 불상은 머리와 동글동글한 나발의 표현, 양감이 강조된 둥근 얼굴, 육감적이면서 균형 잡힌 신체, 신체에 유기적으로 밀착된 탄력과 생동감 넘치는 옷주름 등에서 통일신라시대 9세기 불상과 양식적 친연성이 확인될 뿐만 아니라 통일신라 불상의 전통을 따르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곧 법보전 불상은 늦어도 묵서명에 적혀 있는 883년 무렵에는 조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모든 면에서 법보전 불상과 유사한 대적광전 불상에 대해서 임남수 교수와 남풍현 교수는 과학적 조사 결과를 토대로 법보전 불상보다 조금 늦은 시기에 조성되었을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대적광전 불상의 조성연대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발견되지 않아 단언하기 어렵지만, 법보전 불상과 거의 비슷한 시기에 조성되었거나 이 보다 조금 늦은 고려 초 希郎大師의 해인사 중창 시점에 조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본 글에서는 두 불상의 중수가 크게 두 시기인 1167년 고려왕실을 비롯한 사씨 세력이 중심된 중수와 1490년 조선왕실이 주도한 중수로 중수 층위를 분명히 하였다. 이를 통해 이 2구의 불상의 하한연대가 아무리 늦어도 1167년이라는 사실이 확인된 만큼, 이 두 불상은 현존 최고의 木造佛像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한국조각사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Abstract**

## Wooden Vairocana Statues Housed in the Beopbojeon and Daejeokgwangjeon Halls of the Haeinsa Temple

**Son Young-moon \***

The Haeinsa Temple in the southern Korean peninsula houses two of the most notable works in the history of Korean sculpture: a pair of wooden Vairocana statues. These two statues have long been believed to have been created or repaired during the two-year period between 1488 and 1490, when the temple was massively renovated under the sponsorship of Joseon's royal house. However, artifacts recently discovered inside the two statues, along with the ink-written text inside the one housed in the Beopbojeon Hall, have revealed that they were created no later than 1167. The Haeinsa Temple was founded during the reign of King Aejang in the Silla Dynasty and continuously remained since then a major Buddhist temple. As is well known through various temple records, the construction of this temple and the subsequent series of renovations and expansions took place under the sponsorship of rulers of successive Korean dynasties, including King Aejang, King Heongang, and Queen Jinseong of the Unified Silla, and King Taejo of the Goryeo, and finally King Sejo of the Joseon. The artifacts discovered inside the statues indicate that King Uijong of the Goryeo and the Sa Clan based in Gajo area of Geochang were the two most important patrons for their repair. Once into the Joseon period, high-ranking royal ladies in King Sejo's court played a leading role in their repair and preservation.

---

\* National Treasures Specialist,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of Korea

The Haeinsa was founded by Suneung, a monk who was an active proponent of Chengguan (738-839)'s Zen Buddhism-flavored Huayan doctrine. The two statues of Vairocana housed in this temple are also clear indications as to the doctrinal affiliation of its founder. Although partially repaired, these two statues amply display the characteristics of Unified-Silla Buddhist sculptures, such as the rounded curls on the head of the Buddha, the round face conveying a sense of weightiness, and the sensual and well-proportioned body along with the garment worn close to the body with fluid folds, rendered with liveliness. This suggests that the statue housed in the Beopbojeon Hall was created no later than 883, the date indicated on the ink-written document. Meanwhile, concerning the statue housed in the Daejeokgwangjeon Hall, Im Nam-su and Nam Pung-hyeon, suggested, based on scientific evidence, the possibility that they were created slightly later than the one in the Beopbojeon Hall. Hence, even though no conclusive evidence is available to establish its date of creation with accuracy, the statue in the Daejeokgwangjeon Hall is likely to have been made around the same time as the one in the Beopbojeon Hall or slightly later.

In this paper, the repairs made to these two Buddhist statues in 1167, under the patronage of Goryeo's royal house and the Sa Clan, are clearly distinguished from the repairs done in 1490, on the commission of Joseon's royal house. Thus, it is clear that the latest possible date of their creation is 1167. The two Vairocana statues of Haeinsa are, as a matter of fact, the two oldest surviving wooden Buddhist statues in Korea and must be accorded the place they deserve in the history of Korean sculpture.